

조 사 자 료

2003 - 004

시멘트 메이저 그룹에 의한

세계 시멘트 산업 재편 완성

2003. 3

한 국 양 회 공 업 협 회

시멘트 메이저 그룹에 의한 세계 시멘트 산업 재편 완성

- 세계 5대 그룹 세계수요의 30% 점유 -

□ 최근 몇 년 사이 세계 각지로 진출, 급속히 시장을 확대해 온 LAFARGE(프랑스), HOLCIM(스위스) 등 시멘트 메이저 그룹의 움직임이 '02년부터 진정국면 진입

◦ 배경

- 아시아, 미국, 구주 등에서 시멘트 메이저 그룹의 매수·합병에 의한 기업재편 완성
- 투자를 위한 채무 증가로 경영압박 심화, 다액으로 늘어난 채무변제로 경영방침 선회

◦ 시멘트 메이저 그룹의 해외진출 개요

- 대표적 시멘트 메이저 그룹 5사
LAFARGE(프랑스), HOLCIM(스위스), CEMEX(멕시코),
HEIDELBERGER(독일), ITALCEMENTI(이탈리아)
- 각각 1970년대 본국에서의 재편으로 주도적 지위에 오른 후 미국, 동구라파, 중남미, 아시아로 진출

- 특히 '90년대부터 '01년에 걸친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이 두드러짐
- 또한 이 기간 중 메이저 그룹이 다른 다국적 기업을 산하에 두는 재편이 진행됨

◦ 시멘트 메이저 그룹의 현황

- 상기 5개사 '01년 말 생산능력은 4억 8,000만톤으로 동년의 시멘트 판매량은 3억 2,100만톤 기록
- 5사의 판매량은 세계 시멘트 수요 16억 8,000만톤('01년 추정)의 약 19%에 해당됨
- 중국 제외 시 세계 시멘트 수요는 10억 5,000만톤으로 비중은 약 30%에 달함
- '01년 사별 판매량
 - LAFARGE : 8,800만톤
 - HOLCIM : 8,430만톤
 - CEMEX : 6,120만톤
 - HEIDELBERGER : 4,500만톤
 - ITALCEMENTI : 4,250만톤
- 세계 1위 시멘트 기업인 LAFARGE는 '01년 7월 BLUE CIRCLE (영국)을 매수, 1억톤을 초과하는 생산능력 보유

- 태평양시멘트는 일본 국내 판매량이 5,800만톤에 달하며 세계 4위 생산능력 보유
- 메이저 5사는 북미, 구주, 아시아 주요시장에서 영향력 증대
- 특히 아시아에서의 메이저 그룹의 영향력 확대가 두드러짐
 - 인도네시아 생산능력의 94%, 필리핀의 90%, 태국의 59%, 말레이시아의 47%를 메이저 그룹이 보유
 - 한국에서는 LAFARGE가 2사에 출자, 전체 생산능력의 약 30%를 점하고 있으며 쌍용 양회로의 태평양시멘트 출자 포함 시 54%를 메이저 그룹이 보유
- '02년 이후 메이저 그룹의 인수·합병 움직임 둔화
 - '02년의 인수·합병 및 신증설 例
 - ① HOLCIM 산하 태국 SLAM시멘트의 PTI POLENE 매수
 - ② LAFARGE의 중국에 공장 신설(사천성), 공장 매수(중경)
- 향후 시멘트 메이저 그룹의 인수·합병 관련 전망
 - 최근 수년간 투자액이 70억불(5사계)에 달하여 경영압박 요소로 작용

- 과도한 채무 감소를 위한 차입금 변제로 경영방침 선회 불가피
- 시멘트 메이저 그룹의 상황변화로 인해 향후 단기적으로는 인수·합병 관련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전망

□ 시멘트 메이저 그룹의 아시아 시장 진출

- 대만 시장
 - 아시아 주요시장에서 구미 메이커가 진출하지 않은 유일 시장
 - 석회석 고갈로 인한 대규모 공장 폐쇄가 잇따르는 등 시장 메리트 상실
 - 제 1위 메이커인 TAIWAN 시멘트사의 과도한 시장점유가 진입장벽으로 작용
- 일본으로의 진출
 - LAFARGE가 ASO 시멘트에 일부 출자하고 있을 뿐이며 CEMEX 등 기타 메이저 그룹의 움직임도 주목되었으나 흐지부지한 상황

- 중국으로의 진출 가능성 증대
 - 중국에서의 시멘트 수요 확대 전망에 따라 시멘트 메이저 그룹의 매수 및 공장 신증설 등 투자 확대가 예상됨

 - 태평양시멘트, MITSUBISHI MATERIALS, ASO 시멘트 등 일본 3사 이외에 LAFARGE, HOLCIM, HEIDELBERGER, 그리고 대만, 한국 자본이 진출해 있는 상황

 - 향후 이들 거점의 증설 및 새로운 투자의 확대가 예상됨

자료출처 : 2003. 1. 20 일본시멘트신문